

클린스만호, 이젠 아시안컵 모드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2연승
클린스만 감독 “이번 아시안컵 목표는 우승”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 희망을 키운 클린스만호가 이번에는 64년 만의 아시안컵 우승을 위해 항해한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한국 남자 축구 대표팀은 11월 A매치 2연전이자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1, 2차전을 소화하고 22일(한국시간) 해산했다.

클린스만호는 지난 1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싱가포르와의 C조 1차전에서 5-0 대승을 거둔 데 이어, 21일 중국과의 2차전에서 3-0 완승을 하며 조 선두를 달렸다.

이로써 클린스만호는 지난 9월 A매치 두 번째 경기였던 사우디아라비아전(1-0 승)을 시작으로 5연승을 구가하며 2023년 A매치 유종의 미를 거뒀다. 한국의 시선은 이제 아시안컵으로 향한다.

예초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은 지난 7월 중국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개최지가 카타르로 바뀌었고 이 과정에서 시기도 내년으로 미뤄졌다.

이번 아시안컵은 24개국이 출전해 6개

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치른다. 이후 각 조 1, 2위 12개 팀이 16강에 진출하고, 남은 4지리는 각 조 3위 중에 성적이 좋은 상위 4개 팀으로 구성된다.

한국은 아시안컵 조별리그 E조에서 바레인, 요르단, 말레이시아와 경쟁한다. 전부 한국보다 FIFA 랭킹뿐 아니라 전력 면에서도 약체로 평가받아 토너먼트 진출은 어렵지 않을 거란 기대가 따른다.

다만 우승까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은 60년 넘게 아시안컵 우승과 연이 없었다. 지난 1956년 첫 대회와 1960년 2회 대회에서 2연패를 달성한 뒤 한 번도 정상에 오르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대회를 통해서 그간의 아쉬움을 털어내겠다는 각오다. 손흥민(토트넘), 이강인(파리 생제르맹), 김민재(바이에른 뮌헨)를 중심으로, 황희찬(울버햄튼), 황인범(츠베즈다), 이재성(마인츠) 등 세계적인 수준의 선수들이 즐비해 역대 최고의 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팀 분위기도 좋다. 클린스만 감독이 부임 초기에는 결과와 내용 중 무엇 하나 성과를 내지 못했지만, 최근 A매



지난 21일 중국 선전 유니버시아드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대한민국과 중국의 경기에서 클린스만 감독이 박수를 치고 있다.

치 5경기에서 연속 승리를 하며 흐름을 바꿨다. 클린스만 감독도 이번 “아시안컵 우승이 목표다”라며 대표팀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있다.

아시안컵 개막까지 시간이 채 두 달도 남지 않은 만큼, 완전체 소집은 없다. 다만 국내 소집이 가능한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훈련은 계획 중이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아시안컵 전까지 별도의 친선 경기는 없지만, 12월 말에 해외

파를 제외한 국내 소집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후 1월 초에 베이스 캠프로 이동한다. 베이스 캠프 위치는 비공개”라며 “해외파까지 전부 모인 베이스 캠프에서 최종 점검을 한 뒤 아시안컵이 열리는 카타르로 이동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대회 첫 경기는 내년 1월15일 오후 8시30분 자심 빈 하미드 경기장에서 열리는 바레인과의 조별리그다. /뉴시스



故 최요삼 동생 최경호씨가 기증증서를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전북도체육회 제공)

영원한 복싱 챔피언 체육유물 도체육회 안치

故 최요삼 친동생 최경호씨, 형이 생전에 사용했던
글러브·신발·훈련 일지·복싱경기 사진 등 기증

‘영원한 복싱 챔피언’ 고 최요삼의 소중한 체육 유물이 전라북도 체육회에 안치됐다.

22일 도 체육회(회장 정강선)에 따르면 최근 최요삼의 친동생인 최경호(서울 Y3복싱클럽 관장) 씨가 체육 역사기념관 조성에 힘을 보태달라며 자신의 형이 생전에 사용했던 글러브와 신발, 훈련 일지를 기증했다.

또 동양태평양 챔피언 트로피(라이트 플라이급)와 최요삼 선수의 복싱경기 사진 등도 함께 도 체육회에 전달했다.

최경호 씨의 요청에 따라 기증식은 따로 거행하지 않았다. 도 체육회는 역사적 가치가 높은 체육 유물을 전달해 준 최 씨에게 감사와 함께 기증증서를 제공했다.

정읍시가 고향인 최요삼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권투를 시작했고 20세에 프로 권투 선수로 데뷔 후 13연승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이후 1994년 라이트 플라이급 신인상을 받은 뒤 1994년과 1999년에 각각 동양 챔피언과 WBC 세계 챔피언에 올랐다.

2007년 WBO 플라이급 인터컨티넨탈에서도 우승했지만 그해 12월

1차 방어전을 치른 뒤 실신,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결국 일어나지 못하고 뇌사 판정을 받았다.

그는 각막과 신장, 심장 등을 기증해 6명에게 새 삶을 안겨주며 2008년 1월 35세라는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

이후 짧은 복싱 인생 속 모든 것을 베풀고 세상을 떠난 최요삼을 추모하는 복싱대회를 비롯해 WBC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고, 가수 리쌍이 추모곡을 내기도 했다.

최경호 씨는 “지난 10월 이달의 정읍시 역사인물로 형이 선정 돼 이와 관련 내용을 검색하던 중 전북체육회가 체육역사기념관을 조성하는 것을 알게 됐다”며 “언론 보도를 통해 신준섭(복싱)·임미경(핸드볼) 등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들의 기증식을 보고 고향인 전북에 기증하고자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체육회는 올림픽 영웅을 비롯해 원로 체육인, 프로 선수 등의 체육 소장품 기증 릴레이를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1850점 가량의 소장품을 확보한 상태다.

/뉴시스

장수 장애인 탁구, 전국체전 ‘승전보’

금 2개 · 동 3개 획득

장수군장애인체육회(군수 최훈식)가 지난 3월부터 8일까지 전라남도 목포에서 열린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금메달 2개, 동메달 3개를 획득했다고 22일 밝혔다.

전라남도 목포종합경기장 등 38개 경기장에서 진행된 이번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31개 종목 9,000여 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했다.

장수군장애인체육회는 탁구, 론볼 2종목에 각각 5명, 2명의 선수들이 전라북도 대표선수 선수단으로 선발돼 뛰어난 기량을 펼쳤다.

탁구 종목에는 이근우, 백영복, 김준오, 최병희 선수와 박남수 총감독이, 론볼 종목에서는 심재선 선수와 임복례 심판이 참가했다.

이번 대회에서 장수군장애인체육회 탁구선수단은 이근우 선수가 단식에서 금메달, 혼합복식 동메달, 단체전 동메달을 획득했으며, 백영복 선수가



단식 금메달, 단체전 동메달을 획득하며 전라북도 대표팀 종합성적 11위의 기록에 큰 역할을 했다.

최훈식 회장은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출전해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들이 자랑스럽다”며 “장애인 체육 발전에 큰 희망을 주고 장수군의 위상을 드높여 준 선수단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축하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장수=교관호 기자

KBL “소노-DB, ‘육설 파문’ 복도 CCTV 열람 불가”

“현재 자료와 진술 토대로 재정위 개최 여부 결정”

프로농구 고양 소노의 김승기(51) 감독이 경기 종료 후 상대팀 원주 DB 코칭스태프와 사무국 직원에게 한 육설 논란과 관련해, KBL이 당시 일이 벌어진 체육관 복도의 CC(폐쇄회로)TV 영상을 요청했으나 열람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22일 남자 프로농구를 주관하는 KBL에 따르면, KBL 사무국은 소노-DB의 경기가 열렸던 지난 19일 고양소노아레나 복도의 CCTV 영상을 체육관 관리 주체인 고양도시관리공사(공사)에 요청했지만 받지 못했다.

당초 KBL은 소노 구단에 영상을 요청했지만 ‘관련 권한은 구단이 아닌 공사 측에 있다’는 답변을 받았고, 이에 공사에 영상을 다시 요청했다.

KBL 관계자는 “공사로부터 KBL이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고, 개인정보보호 등의 이유로 (CCTV 영상 제공)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영상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CCTV 영상 자료를 제외하고, 지금까지 모은 자료와 진술을 토대로 (이번 사건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승기 소노 감독은 19일 DB와 경기에서 역전패를 당한 뒤 라커룸으로 통하는 체육관 복도에서 김주성(44) DB 감독을 비롯한 코칭스태프와 이흥섭(51) DB 사무국장에 욕설과 폭언을 했다.

이를 제지하는 권순철(55) DB 단장과는 언쟁을 벌였다. 물리적 마찰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 황명호 소노 사무국장은 “감독님께서 ‘상대팀 단장이 본부석으로 가는 걸 봤고, 이후에 심판의 휘슬이 (불리하게) 바뀐 것으로 느꼈다’고 한다”면서 “죄송하다”고 해명했다.

당시 권 단장은 본부석으로 가 경기 감독관에게 ‘이 경기에서 이기는 지든 제소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판정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